

복식문화사







중세 복식문화



교재: 서양복식문화의 현대적 이해

저자: 김영옥, 안수경, 조신현




출판사: 경춘사

중세 전기의 복식






명칭	그림자료	특징
(튜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서민 계층에서 블리오 대신 착용한 기본적인 복식 - 남자의 튜닉은 길이가 무릎 정도로 짧았으며 벨트를 맸고, 호즈나 브레와 함께 입었다. 여자는 발 끝에 닿는 길이의 튜닉을 착용했다.
(맨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장의 직물로 된 둘러 입는 상의이며 로마네스크 시대부터 (맨틀)이라고 하였다. - 남자의 맨틀은 타원형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직물을 몸에 두르고 오른쪽 어깨나 가슴에서 브로치로 고정시키거나 끈으로 매어 착용하였다. 여자의 맨틀은 반원형이나 직사각형의 모양이 대부분이며 머리에 올려서 쓰기도 했다. - 결과 안을 대조적인 색상으로 대비하기도 하였다.
(블리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마티카)와 (튜닉)이 변형된 의복으로 11세기에는 귀족 남녀가 곁에 착용하였다. - 상체는 꼭 맞고 소매는 땅바닥에 끌릴 정도로 길었으며 소매 폭은 끝부분으로 갈수록 매우 넓었고 스커트는 길고 풍성하게 주름을 잡았다. 상체가 잘 맞도록 뒤 중심이나 옆 여밈에서 X자로 끈을 조여 주었다.
(코르사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들이 블리오 위에 착용한 (조끼)형 의복으로 앞트임이 없으며 길이는 힙선까지이고 몸에 꼭 맞는 형태이다. - 소재는 실크와 모직의 얇은 교직물을 두세 겹 겹쳐 금, 은 색사를 사용하여 누빔으로써 신축성을 주었다.
(브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 남자들이 착용한 바지로 길이와 폭이 다양하였다. - (튜닉) 밑에 착용하였으며 (브레) 위에 양말을 신은 후 발목부터 종아리까지 끈으로 감아서 착용하였다.
(쉬르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십자군 전쟁 시 (갑옷)을 보호하기 위해 갑옷 가리개 의복이었으나, 점차 일반 남녀 모두에게 유행되었다. - 남자용은 발목에서 종아리까지 덮는 정도의 길이가 많았고, 여자용은 주로 바닥에 끌리는 길이였으며 문장을 장식하기도 했다. - 튜닉 위에 착용하면서 튜닉은 속옷의 역할을 했으나 (쉬르코)는 차츰 장식적인 겉옷으로 변해 화려한 색상의 실크, 울 등으로 만들었다.
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자의 헤어스타일은 양 갈래로 땀아 늘어뜨리거나 땀아를 뒤쪽

		<p>에 감아서 정리하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머리장식으로는 흰색 리넨으로 목과 머리를 감싸는 (임플)과 목과 턱을 감싸면서 베일을 쓴 머리위에 장식적인 관으로 고정시키는 (고셋) 등이 있었다. - 모자는 친 밴드로 턱에서 머리까지 두르고 그 위에 (필박스)모자를 썼다. - 남자의 헤어스타일은 짧은 단발 형이나 어깨까지 늘어지는 형이었다. 모자는 후드와 머리에 꼭 맞는 (코이프)를 주로 착용하였으나 베레로나 프리지안 보닛도 애용하였다.
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두는 대개 굽이 없이 앞에서 버클이나 단추로 채우는 형식의 슈즈와 부츠였다. 11세기 말경부터 발 앞부리가 뾰족해졌다.
장신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적인 장신구는 보석으로 장식된 허리벨트였고 특징적인 것으로는 허리띠에 (엘모너)라고 부르는 주머니 장식을 차는 것이 유행하였는데, 십자군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이 십자가를 넣은 주머니를 차던 풍습이 일반인들에게 유행되어 장식화된 것으로 오늘날 핸드백의 유래가 된다.

중세 후기의 복식

명칭	그림자료	특징
(꼬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리오)가 사라지면서 13세기에는 소매가 달리 긴 원피스 형태의 단순한 (꼬뜨)를 착용하였다. - 주로 실내에서 입었으며, 외출할 때에는 (쉬르코)를 덧입기도 하였다. - 블리오보다 상체부분은 비교적 여유가 있고 좁은 허리띠만 묶었다. 소매는 돌면 슬리브나 소매통이 전체적으로 좁은 기모노 슬리브의 형태로 길이가 바닥에 끌릴 정도로 길었는데 여자가 입는 꼬뜨는 약간 더 길었다.
(꼬뜨 아르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꼬뜨)에 장식성이 가미되어 겹옷으로 변형된 것으로 남자는 무릎에 닿는 짧은 길이와 낮은 허리선에 벨트를 두르고 주머니나 칼을 매달아 사용하였고, 여자는 긴 길이의 폭 넓은 것을 착용하였다. - 앞 중심에 촘촘하게 단추로 장식을 하여 상체는 꼭 맞고 소매는 폭이 좁았으나 윗부분에 트임이 있어 팔을 그 사이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장식소매 모양을 한 행잉 슬리브와 좁은 폭의 긴 끈을 팔꿈치의 약간 위쪽에서 무릎 아래까지 늘어뜨린 티핏이 달려있다.
(푸르푸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십자군 전쟁 당시 병사들이 호신용으로 갑옷 속에 입었던 누빈 옷이 겹옷으로 발전된 것으로서 영국에서는 (더블릿)이라 불렀다. - 상체에 꼭 맞게 재단되었으며 동양의 영향을 받아 앞 중앙과 소매에 촘촘히 단추가 달리고 일자 단추 구멍이 생기면서 서양 남성복에 널리 사용되었다. - 재킷의 형태로 목둘레가 높고 등글며 칼라는 없는 것이 많았으나, (스탠딩) 칼라가 달린 것도 있었다. - 브레나 양말, 쇼스와 함께 착용하여 오늘날 남성 복식의 전신이라 할

		<p>수 있으며, 남자만이 착용했던 의복으로 남녀 성차가 뚜렷하게 나타난 예라고 할 수 있다.</p>
(우플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세기 후반부터 15세기 전반에 걸쳐 남녀 사이에 유행한 (우플란드)는 복식을 과장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중세 후기의 대표적인 복식이 되었다. - 풍성하고 긴 가운데형태로 높은 스탠드칼라에 손목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깔때기 형태 또는 튜니형태의 소매를 달았으며 작은 방울을 우플란드 어깨에 촘촘히 장식을 한 점이 특징적이다. - 소매부리와 아랫단에 털 장식을 하거나 안쪽에 털을 대어입기도 하였다.
(쉬르코 우베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여진 쉬르코)'라는 명칭의 장식적인 의복으로서 쉬르코가 변형되어 화려하고 독특한 스타일을 이루면서 특히 상류층의 부녀자들이 애용하였다. - 진동둘레가 힙 선까지 길게 트여 있는 현재의 점퍼스커트의 형태이다. - 스커트 앞 쪽에는 양손을 넣어 앞자락을 들어 올릴 수 있는 트임이 있는데 이것이 주머니의 시초라고 볼 수 있다.
(가나쉬와 가르드 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나쉬)는 쉬르코의 변형으로 생긴 소매 달린 겹옷으로서 짧은 캡소매와 후드가 달려있고 겹감과 안감의 색을 다르게 하였다. - (가르드 꼬르)는 남녀 모두 착용한 옷으로서 특히 여행 시에 방한용 외투로 이용하였다.
(로브(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플란드에서 변형된 여자들의 겹옷으로 영국에서는 (가운)이라고 하며 길과 스커트를 따로 재단하였다. 상체가 몸에 딱 달라붙고 스커트는 주름이 풍성하여 길게 끌리는 스타일로 하이 웨스트에 넓은 벨트를 했다. - 소매는 폭이 좁은 소매와 소매부리가 깔때기 형으로 넓게 퍼지는 두 형태가 많았다. - V자형 목둘레에 솔칼라와 비슷한 턴 오버칼라를 달았으며 (로브)의 안쪽이나 칼라에 털을 달기도 하였다.
(쇼쓰(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쇼쓰)는 다리에 꼭 끼는 바지의 일종이다. - 남자의 (푸르푸앵)과 (꼬뜨 아르디)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남자의 하의인 브레가 짧은 속옷으로 변형되고 대신 쇼쓰는 길어져서 힙선 위로 올라가면서 양말보다 하의로 착용되었다.
갑옷 및 군복		
문장 장식이 있는 타바드와 갑옷 위에 입는 쉬르코		

<p>머리형태 및 모자</p>		
<p>모자(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 여성은 머리를 자연스럽게 늘어뜨렸고 기혼 여성은 머리를 둘로 나누어 양쪽 귀 위에 망으로 감싸 둥글게 말아 올린 후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부르렛 또는 흰색 베일이 장식된 (에스코피온)을 쓰는 등 점차 지나치게 장식하거나 과장하는 형태로 변했으며 터번형, 원뿔 모양, 신장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었다. - 특히 긴원뿔 모양의 (에넵)과 두 개의 원뿔 모양을 한 머리장식은 고딕 시대의 독창적인 모자 형태였다. - 임플, 고셋, 바벳 등은 나이든 여자들이 사용하였다.
<p>모자(남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의 머리 모양은 십자군의 영향으로 짧은 머리가 유행하였으며 그 후 단발, 머리전체를 둥글린 컬의 모양, 짧은 주발형, 중간 길이와 어깨까지 늘어지는 길이의 머리가 유행하였다. - 후드 위에 길게 늘어뜨린 대롱 모양의 (릴리피프)가 유행하면서 그 길이는 경쟁적으로 길어지기도 하였다.
<p>신발 (크랙코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발목길이의 신발이 많았으나 상류층으로 갈수록 앞부리가 뾰족하고 길었다. - 앞 끝이 뾰족한 신발을 (크랙코우), (뿔렌느)라고 하였다. 이 신발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슬을 발목에 감아서 끝을 들어올리기도 하였고 나막신으로 된 패튼을 신기도 하였다.
<p>장신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벨트)는 부의 상징이었으며 넓이와 재료, 형태가 매우 다양하였고 보석으로 장식하였다. - 남자는 발드릭을 한쪽 어깨 위에 사선으로 착용하였고 벨트에 방울을 달기도 하였으며, 여자들은 계속 벨트에 주머니를 매달고 다녔다. - 유리거울이 전래되어 장신구로 쓰였고 동방풍의 부채와 파라솔도 애용하였다.